

자녀교육 - 엄마가 학교에 다닙니다②준비물 · 도시락 챙겨 주기

1회용에 불과한 저질 준비물, 학부모 주머니만 축내

“내일 0학년0반 준비물” 세트로 문방구에서 준비, 도시락 싸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도 바쁠 지경

국민학교 2학년 여아를 둔 김정순 씨(33, 강남구 역삼동)는 2년째 딸애를 대신해 준비물을 챙기다 보니 왜 그리 준비물이 많은지 화가 날 지경이다. 아직은 딸애가 저학년이라 일일이 엄마가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국민학교에 다니는 기분으로’ 하나하나 챙겨주지만 굳이 학생 개개인이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없는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는 어린 아이들에게 개인주의와 소비심리를 심어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지난 달 딸애가 내미는 준비물 난에 ‘배구공 놀이를 위해 각자 배구공 하나씩 가져오기’라는 구절을 읽고 굳이 비싼 배구공을 학생 각자가 준비해야 할까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배구공 놀이라는 것이 여럿이 함께 어울려 노는 놀이인데 말예요. 어떨 때는 수업 진행을 위해 책에 쓰여진 준비물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하는데 일부분만 준비해도 되는 것을 돈을 들여 다 준비해야 하는 건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학년 아이를 둔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준비물로 인한 어려움은 가지수의 많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물 중 하나라도 빠뜨렸을 때 아이들이 받을 정신적 스트레스가 바로 엄마의 몫이기 때문이다. 오해 처 예르 구미하교에 인하



시킨 이해정 씨(은평구 갈현동)는 직장을 다니느라 바쁜 생활로 인해 아이의 준비물 챙기기에 등한시했다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떼쓰는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렸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선생님에게 혼나는 것은 물론 수업시간에 소외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준비물을 못 챙겨가면 짝궁 것을 같이 쓰기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 것 외엔 절대 쓰려고 하지도 않고 남에게 자기 것을 빌려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는 이 씨는 “이제 아무리 바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의 준비물부터 챙기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준비물 준비하기란 그리 번거로운 일만은 아니다. 학교 근처의 문방구에 가면 웬만한 준비물이 다 있는데다 학교측과 연락을 주고받는지 ‘내일 몇 학년 몇 반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따로 마련해 놓기 때문이다. 국민학교 1학년 남아를 둔 조애숙 씨(동작구 사당동)는 처음엔 멋모르고 준비물을 챙기느라 일일이 동분서주 했지만 지금은 주위 사람들의 조언으로 그날그날 필요한 준비물의 가격만 파악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도이며 모든 것을 해결한

수 있는 준비물에 대한 교육적 의미나 학교와 문방구상들의 상업적 기발함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 조 씨지만 ‘1회용’에 불과한 저질의 상품으로 인해 매번 똑같은 것을 사야 하는 번거로움에는 은근히 화가 난다고 한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폐품조차도 문방구에 가면 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 세상입니까?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한번 쓰면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물건을 갖다놓고 학부모의 주머니만 축내는 파렴치한 행위는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쓰레기 죽이기 운동

이나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국민학생들의 준비물부터 제대로 만들거나 아예 준비물을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영구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국민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의 고민은 비단 준비물뿐만이 아니다. 3~4학년이 되면 싸줘야 하는 도시락도 만만치 않다. 직장을 다니는 이영미 씨(성북구 장위동)는 아침 5시에 일어나도 식사준비 하라 아이들 도시락을 싸다보면 출근 준비할 시간도 넉넉치 않다. 국민학교 3학년, 5학년인 두 아이가 제각각 싸달라고 주문한 반찬을 준비하는 데만도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로서 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도시락만이라도’ 맛있게 싸주려고 노력해요. 밥도 아침에 한 따뜻한 밥으로 싸고 반찬은 주로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 하나에다 김치와 고기류로 만들어요. 요즘은 도시락 외에 1,2교시 끝나고 먹는 간식을 싸달라고 해서 감자 튀김 등을 따로 준비하기도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조금만 머리를 쓰면 도시락 싸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엄마들도 있다. 역시 직장을 다니는 김혜순(경기도 부천

시) 씨는 바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식단을 1주일 단위로 짜는데 도시락 반찬도 마찬가지. 아이들 의견을 수렴해 준비한 반찬의 목록을 만들어 이에 필요한 재료를 주말이나 일요일에 준비, 만들어 놓고 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은 뒤 그때그때 꺼내서 간단한 요리를 해준다는 것이다. 아이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위해 가끔씩 도시락에다 간단한 편지를 써서 넣어 주기도 한다는 김 씨는 아이들이 도시락 반찬보다도 엄마의 사랑이 담긴 편지로 인해 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말을 할 때마다 뿌듯하다고 한다.

엄마가 매일같이 도시락 싸는 것이 힘이 들 경우에는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전체 학교의 14%만이 급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민학교 4학년 여아를 둔 한정원 씨(서대문구 대현동)는 한달에 1만8천원을 내고 급식을 신청,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는 번거로움에 대신했다. “단순히 빵이나 우유를 주던 옛날과 달리 요즘 급식 메뉴는 집에서 먹는 것 못지 않게 다양하다”는 한 씨는 “급식을 먹고 나서부터 아이의 편식이 없어져 편식이 있는 자녀를 둔 엄마에게도 급식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준비물과 도시락을 챙기느라 아이보다 더 긴장하며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엄마들에게 몇몇 엄마들의 지혜는 귀담아들을 만하다. 그러나 현실의 잘못된 교육체제를 고치는 데 이러한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은희 기자)